

온도 예민한 돼지·닭, 일교차 큰 봄철 관리 중요

- 10도(°C) 이상 일교차, 가축 면역력 저하 우려

- 바깥 날씨를 고려한 환기와 축사 안 온습도 관리에 신경 써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일교차가 10도(°C) 이상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진 돼지와 닭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봄철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와 닭은 다른 축종에 비해 온도에 민감하고, 호흡기를 비롯한 질병에 취약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돼지는 성장단계에 맞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방 온도는 돼지 어깨높이에서 측정하고, 돼지 행동을 살펴 실제 돼지의 체감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어린 돼지는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보온등 같은 장치를 이용해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축사 내부 먼지를 줄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환기는 온도가 비교적 높은 낮에 할 것을 권장한다. 내부 습도는 60% 내외로 유지하되, 습도가 낮으면 환기할 때 복도에 물 혹은 소독액을 뿌리는 것이 좋다.

축사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소독 전 돼지를 모두 내보낸 뒤(All-out), 전기장치*를 보호 처리한다. 소독 효과는 물기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극대화되므로, 소독 후 축사를 충분히 건조한다.

* 전기장치 : 콘센트, 조명, 환기장치, 배전함 등

육계(고기용 닭)의 경우, 여름 출하를 위해 봄에 병아리를 육성하는 농장이 많다. 육계 농장에서는 병아리를 들이기(입추) 2주 전까지 축사 청소와 소독을 마치고, 깨끗하고 흡수성이 좋은 깔짚을 준비한다. 또한, 급수 검사해 세균수와 광물질 농도가 정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겨우내 비워두었던 축사는 입추 전 준비를 더욱 세심하게 한다.

계사 내부 온도는 병아리 입식 전까지 30~32도로 맞춘다. 계사 내부 온도가 낮으면, 병아리가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 뭉치면서 종종 압사할 수 있으므로, 밤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겨울에 최소로 유지하던 환기량을 조금씩 늘린다.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면 결로가 생겨 깔짚이 습해지고 곰팡이가 슬어 호흡기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비교적 따뜻한 낮에는 환기량을 늘리고 밤에는 최소 환기를 유지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더라도 환기량을 15,000~20,000cfm 정도로 유지해 축사 안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습도를 조절한다.

초봄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 축사 주변 산이나 언덕에서 흙이 무너져 내릴 염려가 없는지 외부 환경도 점검해 조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날이 점차 풀리고 있지만 아직 일교차가 커 가축의 면역력 저하가 우려되는 시기다.”라며, “바깥 날씨를 고려한 환기와 온습도 관리에 신경 쓰고 축사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붙임. 봄 환절기 돼지·닭 사양관리

담당 부서 <출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진영 (063-238-7200)
담당 부서 <공동>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담당자	지도관	박현경 (063-238-7201)
담당 부서 <공동>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책임자	과 장	조규호 (041-580-3440)
		담당자	연구사	김조은 (041-580-3454)
		책임자	소 장	김시동 (033-330-9510)
		담당자	연구사	홍의철 (033-330-9555)

□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 온도 및 습도 범위

성장단계	적온범위(℃)	적정습도(%)
임신돈, 옹돈	16~21	50~60
포유모돈	18~21	50~60
포유자돈	30~35	60~70
이유자돈	22~29	60~70
육성초기	20~27	60~70
육성후기	18~22	50~60
비육돈	16~21	40~60

'MSY 27두 달성'을 위한 사양관리 지침서(2018, 국립축산과학원)

□ 육계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 온도 및 습도 범위

주령	온도, ℃	습도, %
0~1일령	34	70
2~3일령	32	70
4~6일령	30~32	70
2	28~29	65
3	26~27	60
4	24~25	60
5	22~23	60
6	21~22	60
7	18~21	60

한국가금사양표준(2022, 국립축산과학원)

□ 관련 사진

